

# 中國의 改革・開放體制와 韓・中經濟協力の 展望

張 延 庭  
駐韓中國大使

'93. 2. 18 롯데호텔에서 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조찬회에  
강사로 초청된 장연정(張延庭)의 강연내용을 발췌한 것임.

오늘 저는 한국인간 개발연구원의 초청으로 인간개발 세미나에 참가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기업계와 학술계 인사들과 즐거운 자리를 같이 하며 여러분들에게 중국의 개혁개방체제를 소개하고 중한경제협력관계를 공동으로 토론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해준 한국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이며 세미나 회장인 이 규호선생님과 이 자리에 나오신 신사숙녀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8월, 중국과 한국이 수교되고 9월 제가 대사로서 한국으로 부임해온지도 어언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한국 국민의 중국국민에 대한 깊고 두터운 우정과 중국의 이웃나라로서 한국국민들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중국에 대해 강렬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는 중국의 14년간의 개혁개방노선을 총결하였으며,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가일층 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중국 금후의 발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구하는 국가발전 전략목표와 정책은 무엇이며, 중국의 개혁개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중한 양국의 협력이 순리적으로 발전할지 안할지,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상호 협력의 동반자인지 아니면, 경쟁자인지에 대하여 한국의 친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이 여러분의 중국에 대한 인식제고에 도움이 되고 중한 경제무역 협력관계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I. 중국의 개혁과 개방

### (1) 중국개혁개방의 회고와 중국경제의 현황.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역사가 유구하며, 잠재력이 거대한 아시아의 대국이며 동시에 각종 요소로 인하여 중국은 또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낙후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대에 들어,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괴롭힘을 받는 등 가슴아픈 역사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강한 국가를 실현하고, 국민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중국국민들의 자자손손 이어온 꿈이었으며, 또한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과 딸들이 계속하여 분투해오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1949년 새로운 중국이 건립되었고,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길을 닦았으며, 34년동안 중국은 여러방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과 동

시에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변화는 중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시작됐다고 하겠습니다.

14년전,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은 제11기 제3전회를 소집하여, 덩소평선생님의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이론에 따라 중국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자는 위대한 장정을 시작했었습니다. 얼마후 덩소평선생님께서서는 중국의 구체적인 국정에 근거하여, 경제발전을 3단계로 나눈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첫 단계가 80년대 국민 총생산액을 두 배로 올려, 10억 인구의 배부르고 따뜻하게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둘째 단계는, 금세기말까지 국민 총생산액을 다시 배로 증가하여, 국민생활이 잘살고 편안한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며, 세번째 단계는 다음세기에 30년에서 50년까지의 기간을 들여 개인 국민생산 총액이 세계 중등선진국가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며, 국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상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은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였습니다.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공을 거둔 후에 점차적으로 중점을 도시로 전환시켜 나갔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먼저 광둥, 복건에 특수정책과 기민한 조치를 취하여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였으며 深圳(Shen Zhen), 珠海(Zhu Hai), 汕頭(Xian Tou), 廈門(Xia Men) 4개의 경제특구를 건립하였습니다. 후에 계속하여 연해 14개 항구도시를 개방하였고 長江3각주, 珠江3각주, 閩東南지역(閩: 복건성을 지칭함), 渤海灣지역에 경제 개방지역을 개발하였고 海南성에 경제 특구를 설치하도록 비준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국무원은 또 동북지역의 국경지역 개방을 비준함과 동시에, 내륙성(省)과 시(市)에 성회(省會)도시를 개방하여 경제개발지역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미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연해에서 내륙으로 하나의 연해, 연강(沿江) 연변과 내륙성회(省會)도시의 전체 각 계층이

전면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습니다. 14년간의 개혁개방은 온 나라가 생기에 넘치는 빛을 발하도록 하였고, 중화대지에 역사적으로 위대한 변화를 맞도록 하였습니다. 중국의 사회생산력은 커다란 발전을 얻었으며, 정치국면의 안정을 부단히 공고히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첫 단계 계획을 완성하여 11억 인구를 배부르고 따뜻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 기본적인 해결을 보았으며, 현재는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방향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의 14년은 중국의 경제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국민생활 수준에서도 일대 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총체적인 국력은 이미 크게 제고 되었습니다.

중국국가 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중국국민 총생산량의 연평균 성장률은 8.6%로 세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공업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12.2%이며, 농업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5.9%입니다.

세계에서 중국경제 위치가 명확히 제고되었으며, 중국의 주요공업 생산품의 생산량은 이미 세계의 선두자리에 서 있습니다.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원탄, 시멘트, 면직물, 곡류, 면화, 유류, 육류 생산량이 세계 2,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으며, 발전량과 원유생산량은 7, 8위에서 4, 5위로 올라섰으며, 철강 생산량은 제5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주요한 공업, 농업 생산품의 개인 평균 생산량이 세계 평균수준과 부단히 거리를 좁혀가고 있으며 중국국민의 생활수준은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중국의 과학 기술, 교육과 의료보건사업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덩소평선생님의 남방지역 시찰 말씀과 중국공산당 14차 대회의 정신을 지침으로 하여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은 하나의 새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여러분야에서 모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습니다. 국민총생산액은 12%의 고속성장을 하여 4300억 달러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경제환경이 좋지 못한 중에 거둔 성과인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작년 경제평균 성장률이 1.5%였으며, 구소련과 동구 일부나라들은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동남아와 동북아 나라들의 경기가 비교적 좋다고는 하지만 10%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가을철 우리나라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풍년을 이룩하였으며 알곡생산량은 4.4억톤이었습니다. 공업성장률 속도는 20%이상 올라섰으며 경제효율도 명확히 제고되었습니다. 작년 전 해 중국 수출입 무역총액은 1656.5억 달러로 재작년보다 22.1% 제고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출이 850억 달러로 재작년보다 18.3%제고되었고 수입이 806.3억 달러로 재작년보다 26.4% 제고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세계 제11위 무역국으로 되었습니다. 비준된 외국기업의 대중투자는 40291건으로 재작년보다 2.6배가 높아졌으며 협의된 투자액이 458.9억 달러로 재작년보다 3.8배가 높아졌으며 실투자는 83.4억 달러로 재작년보다 1.5배가 높아졌습니다. 작년 외국기업의 대중투자는 개혁과 개방이래 가장 그 수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개혁은 가일층 심화되고 기업의 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가일층 개방하였고 시장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공업소비품에서는 90%를 차지하였고 생산자료 가격에서는 70%를 차지하였으며, 농산품 수매중에서는 85%를 차지하여 시장의 역할이 명확히 높아졌습니다. 대외개방은 가일층 강화되고 연해(沿海)지대의 개방이외에 우리는 연강(沿江), 연변(沿邊)과 성청소재지의 개방을 실시하여 전면(全方位)개방이 실현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발전수준은 인구평균에 비추어 볼때 매우 낮은 것이며, 경제발전에서 있어서도 아직은 일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의 전문가 등은 이미 중국경제의 과열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각 측면에서 조치를 취하여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국민경제에 대해 폭넓은 조정과 통

제를 진행하여 구조의 불균형과 과열현상을 모면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2) 중국경제 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12일, 중국공산당 강택민 총서기는 중공 14차 대회에서 “중국경제 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구개혁개방의 중대한 돌파구인 것입니다.

소련의 해체후 두개의 대국이 양립했던 국면이 종지부를 찍자, 세계는 다극화를 향하여, 경제·과학기술을 기초로 모든 것을 종합하여 국력을 경쟁하며 모든 것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세계에 있어서 발전적인 활력이 가장 왕성한 지역으로 되어가는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래들어 중국은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부단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을 90년대부터 다음세기 전반기까지 도전과 기회가 병존하도록 하였으며, 기회가 도전보다 많은 새로운 세계 환경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세는 중국이 현재의 유리한 시기를 붙잡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혁개방의 발걸음을 가속하고, 생산력의 진일보된 해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건적인 문제는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립하고 발전시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혁 이전까지는 명령식의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했는데 비록 이러한 체제가 모종의 우수한 점이 있어 중국 경제발전 초기에 있어서 특히, 1953년에서 1957년 사이의 제1차 5개년계획기간의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키어 힘을 집중하여 큰 일을 해낸 우수한 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국 경제구

모의 확대화, 경제구조의 복잡화, 발전목표의 다원화, 기술혁신의 가속화, 국민생활 요구의 제고 및 대외개방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고도로 집중된 통일적인 계획 안배와 행정상의 지도는 특색있는 경제 체제에 폐단을 오히려 낳아내며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각 방면 특히 기업과 직원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억제하였으며 경제 효율저하와 경제 이익이 좋지 않는 점들을 초래하여, 심각하게 중국 경제발전을 저해하였습니다.

이런 체제에 대해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현대화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작년초, 덩소평선생님께서서는 남부시찰 연설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역시 계획이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 역시 시장이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입니다. 계획이 조금 더 많은지 아니면 시장이 조금 더 많은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구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덩소평선생님은 또한 개혁은 제2차 혁명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것은 중국국민이 개혁중에서 얻은 가장 의미있는 정신적 해방이며, 반드시 크게 중국의 사회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순리적인 발전인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실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생산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필연적 선택입니다. 세계 경제발전의 보편적 경험은 현 단계에서 시장경제를 위주로 하는 경제모델이 명령적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는 경제모델보다 효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천, 특히 시장경제로 향하는 개혁과 개방의 14년 경험은 이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시장의 비율이 높고 시장의 역할을 잘 발휘한 지역일수록 산업, 기업, 경제발전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을 대폭적으로 제고하고 경제생활에서의 심각한 모순을 극복하며 경제사회발전의 전략적 목표

를 실현하려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할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 공유제를 주체로 다중경제요소를 같은 시기에 공존시키어 경쟁, 공동발전의 소유제 구조를 건립할 것, 2. 시장경제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국유기업제도를 건립할 것, 3. 건전한 규율과 유통이 질서있는 개방적 통일시장체제와 상응한 가격형성기능을 건립할 것, 4. 간접적 조절통제를 위주로 한 거시적 안목의 경제관리체제를 건립할 것, 5. 노동량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按勞分配)을 주체로 하고 기타 분배방식은 보충의 분배제도와 상응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여 전 사회성원이 공동으로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개척할 것, 6. 완벽한 경제법규체제를 건립하여 경제관계의 법제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총괄해서 말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개혁목표를 내놓은 것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전제하에서 시장 기능으로 자원의 우화배급에 기초적 역할을 하는 운행방식과 관리방식을 조종하고 거시적 안목의 경제계획 지도 역할과 긴밀히 결합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까지의 제시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관적 의지도 아니며 한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국민이 장기적인 모색을 통해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 장기적인 역사적 경험의 교훈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진행함과 동시에 국제경험의 교훈과 당대 세계의 가장 새로운 발전에 대하여 냉정한 관찰을 진행하여 얻어낸 필연적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들이 금후 이런저런 문제에 봉착하겠지만은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이 열차의 방향은 다시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3) 중국의 대외정책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야기 할때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개방업무의 대목표아래서, 우리의 대외사업은 중대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변국가들과 선린 우호관계를 다지는 등 건국 이래로 가장 좋은 시기에 처해 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단결협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공고히 하며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선진국가를 포함한 세계각국과의 관계는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의 기초위에서 개선과 발전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은 부단히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적 지위역시 부단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호 주권과 연표의 완전한 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등 원칙의 기초위에서 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건립하고 발전해 나가며, 평화공존, 안정, 공정, 합리적인 국제 신질서를 건립하고자 주장합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 평화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친선협력관계를 날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대화 건설을 전심전력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각국과의 친선협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친선 협력은 늘 필요합니다. 이른바 “중국의 위협” 또는 “중국은 진영을 더 갖추다”의 논조는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정세완화를 주장해왔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 빠른 시일내에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염원을 존중하며, 한민족 스스로가 평화통일을 실현하길 지지합니다. 중한 양국은 모두가 동북아에 자리잡고 있으며 중한 양국의 선린우호의 협력관계를 발전하는 것은 우리 두나라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의의를 가질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이 지역의 긴장완화 추세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며, 이 지역 각국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강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 II. 한중 쌍방 경제 무역 협력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 및 그 대책

현재 세계는 각국의 경제관계가 날로 강화되는 대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여전히 동요와 불안정한 상태일 것이며,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 것이며, 경제환경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는 등 많은 부정적 요소가 세계 경제발전을 제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경제는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능력을 갖춘 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한 양국이 아시아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환경적 우세를 이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두나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한 양국 각국의 경제변혁과 각국의 경제발전 촉진 그리고 중한 양국 국민의 풍요로운 삶에도 유리할뿐 아니라 쌍방의 내수 수출입 무역을 증가시키고, 세계 기타지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주변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회복에 대하여 일종의 촉진이며 또한 공헌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한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세계 경제조류발전에 순응하는 것이며 중한 양국의 경제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세계 경제발전이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에 대하여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응당 아래와 같이 상응하는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1. 먼저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규모를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중한 양국의 경제협력의 시작은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80년대

들어서면서 쌍방의 민간 경제 무역관계는 회복을 맞게 됐으며 각종 형식의 경제 무역 업무활동이 무척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 두나라의 관계 정상화가 실현된 후에 쌍방 경제무역 협력은 진일보 빠른 발전을 맞게 됐으며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1979년 단지 1900만 달러였던 쌍방 민간 무역액이 작년 연말에는 이미 8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1979년 1500만 달러에서 작년 38억 달러로 급증하여 무려 250여배의 증가폭을 낳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역시 1979년 400만 달러에서 작년 47억 달러로 급증, 무려 1100여배의 증가폭을 낳아,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은 흑자무역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3대 무역 동반자가 되었으며 한국 역시 중국의 제6대 무역 동반자로 되었습니다. 투자업무에서부터 볼때도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1985년 단지 한 가지 항목의 14.4만 달러의 투자액에서 작년 연말에는 이미 430여 항목에 이르렀으며 투자액은 3.43억 달러로 급증하였습니다. 투자 항목에서 볼때 중국에서 투자는 이미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수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역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말 이미 10개 기업이 한국의 관련 부문에 비준을 받는 등 진전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한 양국의 대외경제발전 규모에서 볼때 아직까지 비중이 크지 못합니다. 1992년 중한 양국의 수출입 무역액 85여억 달러는 중국의 대외수출입 무역 총액의 단지 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역시 중국의 외자 항목 8/300여개의 0.5%밖에 못미치는 것이며 투자액은 중국이 비준한 외자액 1000여억 달러의 0.3%인 것입니다. 이 몇가지 숫자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근 몇 년간 쌍방의 경제무역 업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쌍방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

니다.

중한 경제 무역 협력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거시적 경제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중한 양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경기 영향 아래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국민생산총액의 세계순위는 중국이 세계 제9위, 한국이 세계 제11위입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이미 세계 제11위이며 한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세계 제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은 12%였고, 한국 역시 5.7%의 경제성장을 하였으며 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평균수준의 몇 배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한 양국의 경제가 안정되고 단계적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규모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양국 경제의 거시적 요구와 필연적 추세인 것입니다.

중한 양국은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구조 및 산업을 상호 보완할 수 있으며 중한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드넓은 배치공간과 행동공간을 제공하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창조합니다.

중한 쌍방의 수출입상품 구조에서 볼때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각 측의 우세는 발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상품으로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옥수수, 원면, 생사등의 농산품이며, 다른 하나는 석탄, 원유, 시멘트, 비철금속 등 광산품입니다. 이 상품은 중국의 한국시장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 우세 상품이며 한국에서는 부족하여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중, 중국에서 수입한 생사, 시멘트, 매탄, 오징어, 고사리, 환약재 등 10개가 넘는 상품은 이미 한국 수입액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상품은 기술을 함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강철제품, 전자제품, 기계, 화공원자재 제품 등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당연히 이러한 상품 역시 중국 경제건설에 있어 필요로 하는 것이며 한국의 수출 우세상품입니다. 양국은 수출입 상품우세의 상호 보완관계를 통해 각자가 생산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두나라 경제의 상호보완작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근 몇 년간 한국의 경제발전의 비교적 큰 변화, 빠른 증가, 제고된 노동원가, 더욱 빨라진 산업구조 조정 등으로 노동집약적형 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시장은 낮아지고, 기업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전할 것인지 파산할 것인지를 선택에 직면하는 등 다급히 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개혁 개방의 가속화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 투자 환경이 나날히 완벽해지고 있으며 기업은 국제화와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원이 풍부하며 숙련된 대규모 노동자를 가지고 있으며 저렴한 임금에 10여년간 대외개방의 실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에서 이전해온 기업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매우 강한 능력과 광범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외국 투자의 비교적 우세한 선택의 여지라 할 수 있습니다.

## 2. 진일보 중한 양국의 경제협력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록 중한 양국의 경제협력 업무가 빠른 발전을 얻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며 교역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등 무역과 투자에만 주되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쌍방 수출입무역의 무역에 의한 비중이 여전히 4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시작이 늦었고, 비중이 작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기술단계가 높지 않아 협력은 비교적 단일화 되어 있으며, 지역 대부분이 해안과 동북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널리 퍼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다방면으로, 여러 영역에서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를 실시하며 국제시장의 정선된 경영방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GATT가 정한 규정에 입각하여 각종 형식의 무역왕래의 협력관계를 완벽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외자 도입에 있어 중외합작기업을 포함하여 중외합작기업, 외국바이어 독자기업 등의 여러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룹식 투자를 취할 수 있고, 또 주식을 구매하거나, 청부 등으로 중국 국영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가입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중형 국영기업을 선별하여 합작생산을 할 수 있으며 투자회사, 주식유한공사 등의 설립을 포함하여 연합경영과 기민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외국 바이어들의 중국 투자영역 역시 진일보 확대 되었습니다. 기초 설비를 포함한 도시건설, 철로, 도로건설, 항구, 부두, 전화투자 등입니다. 특히 작년 중국의 개방은 부동산개발과 토지청부개발의 고조를 형성하였으며 남쪽에서부터 부단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3차산업, 소매상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회계, 통계, 자문, 보험, 운수, 보세지역의 무역에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지역이 크고 물자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각종 풍부한 자원에 진일보적인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매탄을 포함하여 해상, 육상에 석유, 천연가스, 각종비철 금속 및 시멘트, 석재, 건축자재와 비금속광산은 모두 외국바이어들의 각종 다른 형식으로의 개발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적지않은 영역에서의 기초연구는 매우 활발합니다. 고물리에너지, 항로, 항공, 생물공정, 계산기, 소프트웨어, 설계 등 분야에서 이미 세계수준에 근접할 만큼 이르렀습니다. 또한 한국은 실용기술 산업개발능력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중한 양국의 협력영역의 앞날은 넓다고 하겠습니다.

적지않은 상공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중한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상호보완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과 접해 있으며 구라파와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 북으로, 서로, 남으로 사

쌍방 인근 국가와 통해 있어 장기적으로 각종 협력관계가 왕래되고 있으며 그것을 중동지역, 동유럽, 서유럽 지역 서남아시아 대륙과의 경제왕래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적 경제관계와 협력을 잘 하기만 한다면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을 횡단하는 경제부흥지역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서 부산, 인천에서 직접 連元항까지 가서 신장을 통해 서쪽으로 뻗어나가 아시아와 유럽대륙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이용하여 압도적인 우세를 가지고, 중한 양국의 공동으로 손을 맞잡고 노력한다면, 그 협력의 범위는 넓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영향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설명 안해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3. 경제협력의 두터운 길을 공고히 하고 발전하여 협력의 양호한 관계를 건립하여 쌍방경제 무역관계가 중흥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년 9월 노태우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셨을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중 양국의 협력은 무한한 광명의 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면한 급선무를 협력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우리 두나라 국민은 같은 배를 탄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봉(이평)총리 역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적으로는 상호보완관계이며 또한 쌍방이 모두 경제무역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호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국의 상호협력의 앞날은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두나라 지도자가 이렇게 자신만만히 희망을 표시한 것은 중한 협력의 미래가 아름다운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1996년 중한 양국의 수출입 무역은 200~2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투자는 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2000년이 되면 쌍방의 수출입 무역은 450~500억 달러에 이르고, 중국에서의 투자는 65~70억 달러까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한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크고, 발전할 미래가 매우 관심을 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쌍방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민간경제 협력의 통로를 공고히 하고 발전함과 동시에 관련부문사이의 협상기구를 정기적으로 다방면의 만남을 진행하여 쌍방의 경제무역관계를 협상 조성하고, 때맞추어 관세문제를 해결하며, 인원을 왕래시키고, 비자 및 통관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 쌍방의 경제무역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올바른 실시를 취하여 상호 우의를 건립, 협력의 위대한 관계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쌍방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항공, 해운, 육로에서의 쌍중과세 방지를 체결해야 합니다. 협조와 협정을 통해 쌍방의 교류를 확대하고 금융을 포함하여 세관, 상품검사증, 검역, 운수와 업무부문간의 연계를 건립하여 쌍방의 경제 무역합작을 추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경제블럭협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국제조직과 기구에서 쌍방 혹은 다자간 경제무역을 협조적 입장에서 각자의 경제무역 이익을 보호 유지하여 지지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GATT체약국의 지위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이미 관건적인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정부의 지지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중한 양국이 GATT라는 범주 안에서 더욱 더 쌍방의 경제무역협력과 업무왕래를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금후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과 기술 협력이 앞으로 반드시 더욱 크고 더욱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쌍방이 장기적 이익에서 출발하여 상호보완, 상호호혜, 우호적 협상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기본원칙을 추진하며 적극적이며 주동적으로 상호 신뢰함으로써 진일보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장기적이며 안정되게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 현재 세계경제는 블럭화와 그룹화



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 경제발전의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 국민의 강렬한 염원입니다. 중한 양국은 모두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빠른 발전을 하는 국가에 속해 있으며, 이것은 쌍방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양호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나라의 상공기업계는 각자의 총명한 재능을 완벽히 발휘하여 발해, 두만강유역, 동북아지역 및 중국의 장강유역과 화남 지역까지의 모든 지역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해남 경제 특구 개발 중에 합작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두나라 정부의 지지와 협조 아래 이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 자금 그리고

기술 등을 될수 있는 대로 교류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공동으로 양국 국민의 부유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한 양국의 상공기업계가 서로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중심으로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본인은 중국의 대사로서, 또한 우리 실무자들 모두는 반드시 힘을 다해 협조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쌍방 경제 무역, 투자와 기술에 관련된 합작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 상무처(경제부)에 직접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756-2979이며, 팩스 번호는 771-5042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